

교수 동정 및 동문 소식

서울대 음대 전·현직 학장, 나란히 세계적 콩쿠르 심사위원 위촉

김민 서울대 음대 전 학장과 신수정 현 서울대 음대 학장이 세계 최고 권위의 권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리즈 콩쿠르에 나란히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화제를 모았다. 특히 한국인이 리즈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률 교수, 일본에서 관악합주 지휘

김영률 교수가 오는 11월 28일 일본 동경예대와 서울대의 합동 Wind Ensemble 연주회(동경예대 콘서트홀)에서 연주와 지휘를 할 예정이다.

김인혜·박현재 교수, 의정부 국제음악축제 오페라 <카르멘> 출연

현재 국내 오페라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김인혜 교수와 테너 박현재 교수가 의정부 국제음악축제의 비제 오페라 <카르멘>공연에서 '돈 호세'와 '미카엘라'로 출연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임현정 교수, 다름슈타트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지휘

지휘자 임현정 교수가 지난 4월 독일 다름슈타트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호평을 받았다. 임 교수는 올해 가을부터 부친 필하모닉과 함께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을 완주할 계획이다.

박미혜 교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출연

소프라노 박미혜 교수가 5월 초 글로리아 오페라단 창단 17주년 기념으로 열린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주인공 비올레타 역으로 출연해 갈채를 받았다.

주희성·백주영 교수, '해피뮤직스쿨' 참여

주희성 교수와 백주영 교수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인 '해피뮤직스쿨'에 참여해 연말까지 매주 한 차례 이상 어린 음악도들을 지도한다. SK텔레콤 주최로 열린 이 프로그램은 미국 줄리아드음대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MAP(Music Advancement Program)'을 참고한 것으로, 음악교육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장형준 교수, 스코틀랜드에서 연주회

피아니스트 장형준 교수는 지난 3월 16일 수원시향

거문고의 명인 정대석 교수 임용



올해 3월, 거문고의 명인 정대석씨가 비(非)음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울음대 국악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를 모았다. 단국대 국문과 출신인 정 교수는 KBS국악관현악단 악장을 지냈으며 '거문고의 1인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거문고의 세계화'를 꿈꾸는 정 교수의 거문고 사랑은 그의 홈페이지 '정대석의 거문고세계(www.geomung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 슈니트케의 피아노협주곡을 협연해 호평을 받았으며, 4월에는 스코틀랜드에서 Royal Scottish Academy of Music and Drama 초청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개최했다. 장 교수는 올해 11월 TIMF양상들과 함께 중국 심양에서 연주할 계획이다.

김승근 교수, 국악 관현악곡 신작 발표

김승근 교수는 KBS국악관현악단의 위촉으로 작곡한 국악 관현악 작품을 오는 9월 6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최희연 교수, 활발한 실내악 연주활동

피아니스트 최희연 교수는 지난 2월 28일 세계정상급 실내악단인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 현악4중주단과 슈만의 피아노5중주곡을 협연해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11월부터는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브람스 실내악 연주 시리즈에서 다섯 차례 실내악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우정 교수, 음악극 <로즈> 공연

2006년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작으로 호평을 받았던 최우정 교수의 음악극 <로즈>가 2007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초청되어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자랑스러운 동문 테너 김재형

테너 김재형이 5월 16일 나무아트센터에서 말리의 가곡으로 독창회를 연다. 1998년 뮌헨 ARD 콩쿠르 입상 이후 유럽에 진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유명 오페라 극장에 서고 있는 김재형은 지난해 예술의 전당 오페라 <돈 카를로>에서의 호연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페에서 <카르멘>의 주인공 돈 호세 역으로 호평 받은 데 이어, 올 가을 이 극장에서 다시 갈

은 역을 부른다. 내년 예술의전당이 한국 초연하는 바그너 <파르지팔>에 출연할 예정이다. 김재형은 독일에서 여러 차례 독창회를 했지만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콩쿠르 입상 소식

- 작곡:
 - 중앙콩쿠르 1위없는 공동 2위 김도윤, 정영빈
 - 창악회콩쿠르 2위 전예은
- 성악:
 - 중앙콩쿠르 (남성)1위 조현광
 - 공동 3위 이승수,정동호 / (여성)2위 이지나
 - 이화경향콩쿠르 (남성)1위 김은국 (여성)1위 장혜지
 - 마리아칼라스 국제콩쿠르 2위 문정현
 - 4위 이응광
 - 슈베르트콩쿠르 1위 정동호
- 피아노: 중앙콩쿠르 2위 고우리 / 3위 김은찬
- 현악: 중앙콩쿠르 2위 배지혜(첼로)
- 관악: 중앙콩쿠르 1위없는 2위 유지홍(플루트)

서울음대 발전기금 모금 안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이 내주시는 발전기금은 시설개선 및 모교 재학생 지원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재원확보로 이어져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873-03-010186 예금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문의: 02) 880-7900



음대 소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뉴스레터 제1호

발행인: 신수정

발행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울특별시 신림동 산56-1 서울음대기획실 Tel: 02-880-9820

I 창간 인사말



존경하는 동문,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관악캠퍼스의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오월에 우리 음대 가족의 대화의 장이 될 「음대 소식」 창간을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올해 개교 61주년을 맞이한 서울음대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줄 음대 뉴스레터의 발간에 큰 기대를 걸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음대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공연된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반니」 또 대학 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의 말리의 「천인 교향곡」의 연주는 깊은 감동의 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감동의 뒤안길에는 구도자처럼 끊임없이 자신과 또는 악기와 싸워야하는 외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인들은 강한 개성을 지닌 예술인이지만 오케스트라와 합창 속에서는 자신을 없애야하는 단체인이며 동시에 일상 생활에 어울리는 사회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묶어주는 음대뉴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모여 같은 길을 가는 우리 음대 가족들의 유대가 깊어지고 세계속의 음대, 또한 지역사회와 음악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음대의 역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유익한 소식이 가득한 음대 뉴스레터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5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신수정

서울음대 5월 축제 Homecoming 개최!

계절의 여왕 5월! 음악대학에서는 캠퍼스의 아름다움과 모교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서울음대 교직원과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음대를 거쳐 간 수많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이 뜻 깊은 축제를 위해 서울음대 각 과에서는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다채롭고 흥겨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예술관 앞 광장에서는 기금모금 바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의 기금모금 바자회를 위해서 벌써 많은 분들이 물품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출판사 여백에서 도서, 최고의 와인매점 Winetime에서 와인, 명품 도자기회사 광주요에서 도자기, 호산식품에서 무공해 청국장, 애경에서 화장품 및 삼푸, 해태와 크라운제과에서 과자, 풀무원에서 식품, 음악세계사에서 음악도서, 김인혜, 강종모, 임현정 교수께서 음반, 장영희, 김점선 선생께서 책과 그림, 서울음대에서 60주년 연주회 DVD, 그밖에도 코카콜라, 화요소주, 맥주, 비타민, 주얼리 등을 기증해주셨고, SK 텔레콤과 신한은행, 메리츠 해상보험, 코스모스 악기, 영창피아노, 경기상호저축은행에서 광고 협찬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위 여러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기금모금 바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음식준비를 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음대 5월 축제가 우리 모두에게 모교 사랑을 키우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Program

- 12:00 Homecoming Open
- 12:50 ~ 13:00 Opening Fanfare
- 13:00 ~ 15:30 **과별 작은 음악회**
 - 13:00 피아노과
 - 13:30 성악과
 - 14:00 관·현악
 - 14:30 작곡과
 - 15:00 국악과
- 16:00 ~ 17:00 **특강**
 - "상상력 경영 Imagination Management" (강사: 삼성경제연구소 강신장 상무)
- 17:00 ~ 18:00 **Festival Concert**
 - 가야금앙상블 '사계(四季)'
 - 음악대학 남성 중창
 - SNU Strings
- 19:30 SNU Philharmonic Orchestra 연주회

음악 속의 명사

하인리히 하이네 (Heinrich Heine 1797-1856) '아름다운 5월에'

※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Dichterliebe)은 하이네의 '서정적 간주곡'(Lyrisches Intermezzo) 중 16편에 곡을 붙인 낭만주의 가곡의 걸작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이네의 시를 음미하며 그 중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를 감상해보자.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Knospen sprangen,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Im wunderschönen Monat Mai
Als alle Voegel sangen,
Da hab ich ihr gestanden
Mein Sehnen und Verlangen.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꽃봉오리가 피어났을 때,
그때 나의 가슴 속에서
사랑이 움텄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들이 노래 불렀을 때,
그때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네,
나의 그리움과 갈망을.

Vol. 001 / May, 2007
n e w s l e t t e r



국악과 행사

- 2월 25일~3월 1일 국악과 제9회 동계음악캠프
- 3월 16일 신입생 환영연주
- 4월 6~7일 국악과 총 MT
- 4월 23일 전통가곡 연주회
- 4월 30일 전통가곡 연주회
- 5월 4일 타악연주회
- 5월 18일 야외음악회
- 8월 27~31일 국악과 제10회 하계음악캠프
- 11월 2일 국악과 제49회 정기연주회

기악과 피아노전공 행사

- 3월 9일 Robert Levin (하버드대 교수) Master Class
- 3월 10일 Robert Levin 특강
"모차르트 작품에서의 장식음과 즉흥성에 관하여"
- 3월 14일 Paul Barnes(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School of Music 교수)
Lecture Recital
"Liszt and the Cross - Music as Sacrament in the b minor Sonata"
- 3월 19일 Paul Barnes Master Class
- 3월 21일 Paul Barnes Lecture Recital "Barber Sonata에 관하여"
- 3월 23일 Ulrich Meinung Master Class
- 4월 6일 문용희 교수(피바디 음대) Master Class
- 5월 16~30일 Michael Hauber(만하임음대 교수) Master Class
- 5월 29일 SNU Symphonic Band 피아노 협연
- 5월 29일 Ronan O'hora(Guild Hall School of Music and Drama 교수)
Master Class
- 10월 8~13일 <2007 Piano Festival>
- Guest Artists: Eduardus Halim(NYU 교수, 호로비츠 마지막 제자)
변화경 교수(New England Conservatory 교수)
- Concerto Concert
- 11월 20일 Timothy Ehlen Recital & Master Class

기악과 관현악 전공 행사

- 3월 8~9일 Jeroen Reuling Cello Master Class
- 4월 9일 Tuba Master Class
- 4월 11일 Eric Shumsky Viola Master Class
- 4월 26일 SNU Symphony Orchestra
- 4월 30일 SNU Phillharmonic Orchestra
- 5월 1일 Lesley Robertson Viola Master Class
Scott St.John Violin Master Class
- 5월 6일 Jean-Jacques Kantorow Violin Master Class
- 5월 14일 Percussion Master Class(J. Lee Lane)
- 5월 22일 SNU Wind Ensemble 야외연주
- 5월 23일 SNU String Ensemble 정기연주회
- 5월 25일 SNU Percussion Group 정기연주회
- 5월 29일 SNU Symphonic Band 정기연주회
- 6월 1일 타악기 마스터 클래스(Nakamura Isao)
- 6월 17일 SNU Symphonic Orchestra
- 6월 18~20일 Woodwinds Class 연주
- 10월 10일 타악기 마스터 클래스 예정
- 10월 중 SNU Symphonic Band 야외연주
- 11월 26일 SNU Symphony Orchestra
- 11월 28일 SNU Wind Ensemble 동경예대 합동연주
- 12월 2일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
- 12월 22일 SNU Symphonic Orchestra

성악과 행사

- 4월 25일 이인영 교수 Master Class
- 5월 10일 강연 "예술의 전당 김용배 사장과와의 대화"
- 5월 16일 안형일 교수 Master Class
- 5월 23일 Eastman 음대 성악과장 Master Class
- 6월 5일 윤현주 교수 음악회
- 6월 14일 이경숙 교수 Master Class
- 11월 15일 성악과 합창 연주

작곡과 현대음악 시리즈 STUDIO2021의 2007 일정

Choral Music Concert

일시: 5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예술관(49동)콘서트
출연: 원영석(지휘), 현대성악앙상블, SNU New Music Ensemble

2007 Sacred Music Project "Psalmen"

일시: 9월 1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영산아트홀

2007 Music Theatre Project <A Frank Preview>

일시: 11월 20일(화), 2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게릴라 극장



국악과 동문 미스코리아 진 이하늬 미스 유니버스 출전

지난 2006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국악과 동문 이하늬가 5월 28일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하기 위해 출국 길에 올랐다. 아시아 출신으로 유일하게 '포토제닉 4위'에 뽑혔으며, 인기투표에서 9위를 기록하는 등 벌써부터 세계의 무대에서 활약상이 돋보인다. 오는 28일의 입상 결과를 기대해 보자.

[연구소 소식]

서양음악연구소 http://wmri.snu.ac.kr

독일 브레멘 국립음대 교수 쿠르트 자이베르트 (Kurt Seibert) 초청 강연

주제: "요하네스 브람스와 막스 레거: 모더니즘의 출현"
일시: 2007년 5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동 203호

음악사 주요작품 연구시리즈 I

주제: "베토벤과 슈만"
일시: 2006년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동 203호

음악사 주요작품 연구시리즈 II

주제: "말러와 쇤베르크"
일시: 2007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5시
장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5동 203호

2007년 22기 공개강좌(음악실기과정 / 교회음악지도자과정)

서양음악연구소에서는 <음악실기과정>을 개설하여, 음악전공자는 물론 음악 실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전공 실기를 심도 있게 교육합니다. 본 공개강좌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사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수의 연주자들을 교수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음악지도자과정>에서는 교회 성가대, 관현악단 지휘자, 교회음악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심도 있게 교육합니다. 지휘실기와 성악 발성법, 합창실기, 리허설테크닉, 교회합창문헌, 교회음악사, 합창편곡법, 예배음악반주, 교회음악행정 및 예배학 등의 특별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접수기간: 2007년 8월 6일(월) ~ 8월 10일(금) 10:00~18:00
지원서 교부: 서울대 음악대학 53동 111호 공개강좌사무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제출물: 1. 지원서, 2. 반명함판사진 2매 (전형료 35,000원)

면접 및 오디션 전형일: 2007년 8월11일(토)
오전 10:00 (음악실기 과정 - 면접 및 오디션)
오전 10:00 (교회음악지도자과정 - 면접)

『음악이론연구』 제12집 원고모집

서양음악연구소에서는 본 연구소 정기간행 학술지 『음악이론연구』의 제12집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본 학술지는 지난 2006년 12월 28일부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응모된 원고는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한 달 이내에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필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주제: 음악학의 모든 분야
원고마감일: 2007년 8월 31일
보내실 곳: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2006.12.28~)

2007 김영욱 Summer Music Academy

일시: 2007년 7월 30일(월) ~ 8월 11일(토) : 12일 간(일요일 제외)
대상: 바이올린 전공하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
(단, 고3 수험생 제외)

신청자격: 소나타/협주곡/무반주작품 중 최소한 한 곡 전악장 연주 가능한 자
선발방법: 서류 및 음향자료(CD 및 TAPE 등)로 1차 선발 후,
김영욱 교수의 오디션을 통한 선발 (최종 20명 선발 예정)

수업내용: 개인레슨 3~4회 / 레슨참관 / 김영욱과의 대화 / 우수학생연주회
접수기간: 2007년 6월 25일(월) ~ 6월 29일(금) 10:00~18:00
문의: http://wmri.snu.ac.kr /openclass@hanmail.net / 02)880-7901

동양음악연구소

2007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Asian Music Conference)

주제: "한국 · 중국 · 일본의 음악문화"
일시: 2007년 9월 7일 (금) 오전 10:00
장소: 서울대학교 박물관

오페라연구소

Pietro Mascagni_Cavalleria Rusticana (1890)

일시: 5월 12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전북 익산 소리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예인 인터내셔널 스프링 뮤직 페스티벌 중 셋째날 공연

2007 춘계 야외음악회

- 시간: 매연주일 12:00
장소: 문화관 앞 라운지
- 일정 : 5월 2일(수) Piano Quartet 5월 16일(수) The Piano
 - 5월 4일(금) 목관5중주 5월 18일(금) 국악관현악
 - 5월 7일(월) 금관5중주 5월 21일(월) Jazz Ensemble
 - 5월 9일(수) Big Band 5월 22일(화) SNU Wind Ensemble

SNU TUESDAY CONCERTS

- 1회 | Werther Quartet / Veritas Quartet
일시: 4월 24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2회 | Alcina의 Magic Island로의 초대
일시: 5월 1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3회 |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트리오
일시: 5월 8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4회 | 서울 클라리넷 앙상블
일시: 5월 15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5회 | Ensemble Festival
일시: 5월 22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서울음대 개교 60주년 기념 공연

서울음대의 <돈조반니>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공연된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는 서울음대에서 주최한 공연 사상 가장 성공적인 오페라 공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공연 전 문화관 앞

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관람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좌석이 가득 차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문화관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마침 서울대 개교 60주년과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이 맞물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을 뿐 아니라 서울음대 성악과 학생들의 과감한 연기와 훌륭한 가창, 서울음대 1학년 오케스트라의 뛰어난 연주가 청중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오페라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자막을 제공한 것도 일반 관객들이 오페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문화관 객석에는 서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관악구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서울음대 오페라연구소장 박세원 교수의 지도하에 <돈조반니>의 캐스



성악지도_박세원 교수 지휘_김덕기 교수

팅은 모두 다섯 팀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는 오페라 공연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주역 캐스팅의 경우 통상 두 팀 정도가 기본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주역을 맡아 노래할 수 있도록 다섯 팀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팀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연주와 연기력을 선보여 청중을 사로잡았고, 예전에 비해 재학생들의 연기와 가창이 한층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덕기 교수의 지도하에 여름방학 내내 오페라 반주 연습에 몰두한 음대 1학년 오케스트라의 호연도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오페라 전문가인 지휘자 김덕기 교수는 이번 공연을 성공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해 공연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서울음대의 <돈조반니> 공연은 단지 서울대 내의 성공에 그친 것이 아니라 관악구민들에게도 수준 높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서울음대의 오페라 공연이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 대중화의 발판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해본다.

서울음대와 말러



지휘_임현정 교수

2006년 12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우주의 교향악이 울려 퍼졌다. 임현정 교수가 지휘하는 서울음대 오케스트라가 대학 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말러의 교향곡 제8번 '천인 교향곡'을 연주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서울대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관현악 전공 학생들로 이루어진 음대 오케스트라와 음대 교수들로 구성된 8명의 독창자, 그리고 성악과와 피아노과, 국악과, 작곡과 학생들이 총동원된 연합합창단이 출연해 거의 400명에 이르는 음대인들이 함께 모여 깊은 감동의 순간을 맛보았다.

말러의 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은 그 규모로 보나 음악성으로 보나 기성 오케스트라도 연주하기 어려운 대곡이지만 서울음대 오케스트라였기에 그것은 가능했다. 그리고 말러 음악 전문가인 임현정 교수와 윤현주 교수가 있었기에 감히 도전할 수 있었다.

지휘자 임현정 교수에게 있어 말러의 음악은 매우 각별하다. 그가 부친 필하모닉과 함께 말러의 교향곡 전곡을 성공적으로 완주해낸 업적은 국내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사실 임

현정 교수가 부친필과 함께 말러 교향곡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서울음대 오케스트라 말러 교향곡을 연주해온 준비기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서울음대 오케스트라가 처음으로 말러의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한 것은 1993년. 그 후 서울대 오케스트라의 말러 교향곡 사이클은 1996년의 제2번 '부활', 2001년의 제3번, 2004년의 제4번, 그리고 2006년의 제8번 '천인교향곡'으로 이어졌다.

이번 말러 '천인교향곡' 연주회에서 음대생들의 팀워크는 특히 합창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연주회 이후 인터넷 고전음악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온 연주 평에는 서울음대 연합합창단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천인교향곡'의 합창은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말러 스펙트럴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윤현주 교수의 열성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훌륭한 연주를 해낼 수 있었다. 성악과 뿐만 아니라 국악과, 작곡과, 피아노과까지 총동원된 연합합창단은 윤 교수의 세심한 지도 아래 1학기 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거쳤고, '우주의 교향악'에 걸맞는 우렁찬 합창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합창지도_독창_윤현주 교수

음악이란 기본적으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음대 오케스트라의 말러 연주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다른 과 학생의 얼굴도 모른채 자신의 전공에만 매달리며 홀로 연습해온 음대생들이 다 함께 모여 말러의 '천인교향곡'을 연주하면서 음악적 교감을 나눈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음악적 화합의 장'이었다. 서울음대 오케스트라는 다음 연주회에서 또 다시 말러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하며 음대인의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음대 오케스트라가 말러 교향곡을 차례로 연주해나가면서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기를 바란다.

김영욱 교수 Interview



바이올린 전공자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올 여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최고의 바이올린 스승인 김영욱 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해부터 서울음대 서양음악연구소에서 시작한 '김영욱의 서머 뮤직 아카데미'가 올해도 7월 30일부터 12일간 열린다. 대학교수의 지도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는 어린 학생들이나 졸업 후 유학을 준비하는 음악인,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레슨을 받기를 원하는 대학생, 그리고 큰 연주회를 앞둔 기성 음악인들 모두에게 더 없이 값진 기회다.

국내외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해온 김영욱 교수가 서울음대로 부임해온 지도 올해로 벌써 4년째. 그동안 후진 양성에 몰두해온 김영욱 교수의 음악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지난해부터 서머 뮤직 아카데미를 이끌고 계십니다. 참가 대상이 중고등 학생에서부터 일반인까지 매우 폭넓은데요,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니 방학이 너무 길고 학습 기간이 짧아서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 기간을 제외하면 한 학기에 3개월 정도인데 이 기간에 서너 곡 익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름에 2주간이라도 학생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를 졸업해서 연주자로 활동하거나 유학을 준비하는 음악인들에게도 이번 아카데미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레슨 방식이 궁금합니다.

학생들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악보에 있는 음표와 악상기호에 충실히 따르면서 작곡가의 의도를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악보에 'pp' 라고 써 있다면 그 pp가 어떤 pp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도록 하지요. 그런 고민과 상상력이 좋은 연주의 출발점입니다.

바이올린은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기술적인 문제가 항상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왼손이나 오른손의 나쁜 버릇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는 '음악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안돌아간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연습만 한다면 하루 24시간을 연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음표 하나하나의 가치와 기능이 다르고 프레이즈 하나하나의 방향과 목표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연습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기술적인 문제

도 이 음악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풀어나간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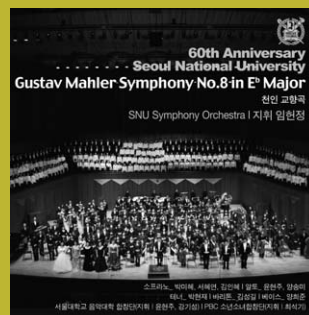
독주자뿐만 아니라 실내악 연주자나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를 꿈꾸는 학생들의 경우 특별히 다른 연주법을 배울 필요는 없을까요?

사실 바이올리니스트가 완전히 독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이올린콘체르토도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실내악이고, 바이올린소나타 역시 피아노와 함께 하는 실내악입니다. 바이올린 혼자서 하는 음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독주자가 되건 오케스트라 플레이어가 되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앙상블 훈련을 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음악 전체로 보면 하나의 성부인데 그것을 혼자서만 연습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악기 소리를 듣지 않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연주한다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혼자서 떠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입니다.

좋은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 이외에 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악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 예를 들어 사랑과 헌신, 열정 같은 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인생을 폭넓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몇 년째 한국 학생들을 지도해보니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콩쿠르와 입시만을 목표로 혼자서만 연습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생활의 변화가 거의 없더군요. 그만큼 인간의 많은 감정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는 것인데, 그것은 음악 표현을 위한 상상력 개발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인생을 폭넓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음대 오케스트라 말러 '천인교향곡' 연주실황 DVD 발매!



말러 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

지휘_임현정

소프라노_박미혜, 서혜연, 김인혜 알토_윤현주, 양승미 테너_박현재 바리톤_김성길 베이스_양희준

서울음대 오케스트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합창단(지휘: 윤현주, 강기성) / PBC소년소녀합창단(지휘: 최석기)

※지난 2006년 12월 1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었던 서울음대 오케스트라의 말러 '천인교향곡' 연주 실황 DVD가 발매되었습니다. DVD의 판매수익금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호응 바랍니다!

구입문의: 서울음대 기획실 (02-880-9320)

김호정 Interview



김호정 기자는 서울음대 기악과 피아노전공 00학번 출신으로 현재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음대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김호정 기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후 일간지 기자가 되셨는데, 음대 졸업생에게는 독특한 진로라고 생각됩니다. 학창시절부터 기자의 꿈을 갖고 계셨나요?

처음으로 기자를 생각한 것은 대학 입학 이후입니다. 대학에 오니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펼쳐졌어요. 각기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친해지고, 다른 대학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간혀 살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직업,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일은 필카 하고 고민했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실제 프로세스를 알지는 못했지만 어렵풋한 생각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자가 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실제 시험은 영어(토익·토플·텡스 중)-국어-상식-글쓰기(논술·작문)-면접(토론·합숙 등)으로 이뤄집니다. 방송사의 경우 카메라 테스트와 기사 읽기 능력도 봅니다. 회사마다 전형이 조금씩 다르구요. 논리적인 글을 좋아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특특 튀는 발상을 중요시하는 신문사도 있죠.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 '언론고시'라고 불리지만 사실 각 회사의 입사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기자는 자신의 만족과는 별개로 읽는 사람을 위한 글을 씁니다. 채용 기준도 여기에 준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실제 시험은 영어(토익·토플·텡스 중)-국어-상식-글쓰기(논술·작문)-면접(토론·합숙 등)으로 이뤄집니다. 방송사의 경우 카메라 테스트와 기사 읽기 능력도 봅니다. 회사마다 전형이 조금씩 다르구요. 논리적인 글을 좋아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특특 튀는 발상을 중요시하

는 신문사도 있죠.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 '언론고시'라고 불리지만 사실 각 회사의 입사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악을 전공한 것이 기자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나요?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부에서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입사 후 2년 동안은 사회부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최전방'이라는 경찰서 출입기자를 신나게 했습니다. 살인범을 만나고 비리 사건을 추적할 때 음악을 전공한 것이 도움이 됐을까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소통하는 법을 압니다. 또 기자는 '사람 장사'를 하는 직업이라고들 합니다.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음악 전공자들이 기자에 적합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갖춰야할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자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과 감각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현장에도 많이 가면 기사거리가 나옵니다. 기자의 가장 큰 영예인 특종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애매한 곳만 들쭈서서는 좋은 기사가 나오지 못합니다. 누굴 만나야 하는지, 똑같은 얘기라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면 기사가 되는지를 아는 예민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함과 감각은 각각 열의와 경험에서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미래의 기자를 꿈꾸는 음대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음악만큼 끈기를 필요로 하는 분야도 드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꼬박 연습을 하고, 고민하며 한 분야를 파고든 얘기는 사람들을 항상 놀라게 하죠. 기자 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그 악마리 정신으로는 뛰든 할 수 있습니다.

뛰든지 궁금하면 e-메일 주세요. wisehj@joongang.co.kr

올해 기억해야 할 음악가

지난해는 음악계의 특별한 한 해였다.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탄생 250주년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슈만의 서거 150주년,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줄줄이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국내외 음악계가 떠들썩했다. 그렇다면 올해도 기념해야 할 위대한 작곡가들이 있을까? 모차르트만큼 널리 알려진 작곡가들은 아니지만 올해도 역시 기념할만한 거장 음악가들이 있다.

2007년은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서거 50주년이자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의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로, 북유럽의 음악가들이 기념일을 맞이했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브람스 등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음악에 비해 북유럽의 음악은 상대적으로 국내에 덜 알려져 있지만, 신비로운 화성과 환상적인 악상으로 독특한 느낌을 준다. 특히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음악은 베토벤 음악을 연상시키는 탄탄한 구성과 민속주의적 요소가 합쳐져 더욱 깊은 감흥을 준다.

시벨리우스는 번호가 붙지 않은 초기의 '쿨레르보 교향곡'까지 포함시켜 모두 8개의 교향곡을 남겼고 베토벤 이후 주요 교향곡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다.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그의 음악이 자주 연주되는 편은 아니지만, 193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는 '시벨리우스 붐'이 일어나 그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그 당시 미국 청중들의 작곡가 인기투표 결과를 보면 시벨리우스의 인기는 베토벤과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말러의 음악이 갑작스럽게 붐을 이룬 이후 지난 몇 년 사이에는 국내 음악계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시벨리우스의 음악도 올해 서거 50주년을 계기로 조만간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겠다.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북유럽의 음악을 들으며 그 낯선 아름다움에 취해보자.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



만하임음대 학장 루돌프 마이스터 교수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와의 인연은 2001년 독일에서 개최된 합동연주회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 관현악전공생들로 구성된 연합오케스트라는 서울음대의 임현정 교수와 만하임음대의 클라우스 아르프 교수의 지휘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과 R. 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함께 연주하며 음악적인 교감을 나눴다.

두 음악대학의 우정은 2001년 6월에 맺은 서울음대-만하임 국립음대 교류협정 체결로 더욱 돈독해졌다. 한국의 최고(最) 음악대학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의 최고(最) 음악대학인 만하임 국립음악대학의 역사적인 만남인 셈이다.

이후 서울음대-만하임음대 연합오케스트라는 2002년 10월 16일 예술회관 콘서트홀에서 R. 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

했다'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연주했고, 2005년 4월 19일에는 세계적인 연주자인 카네기홀 무대에서 함께 연주해 현지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05년 2학기부터는 매학기 한 명씩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 간의 교환 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건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만하임음대 교환 학생 출신인 고우리(기악과 피아노전공 4학년)는 올해 중앙콩쿠르에서 2등에 입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만하임음대의 교환 교수로 서울음대의 김귀현 교수(피아노)와 윤현주 교수(성악), 박미혜 교수(성악), 황준연 교수(국악)가 참여했고, 만하임 음대에서는 피스토리우스 교수(피아노)와 플라스만 교수(첼로), 라미레즈 교수(성악), 폴트 교수(이론)가 서울음대에서 마스터클래스 및 실내악 연주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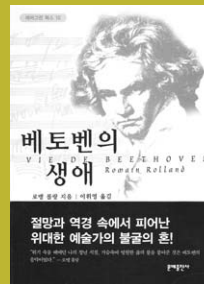
서울음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하임 국립음대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만하임 국립음대 홈페이지(<http://www.muho-mannheim.de>)를 참조하면 된다.

권하고 싶은 책

로맹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

(로맹 롤랑 지음, 이휘영 옮김, 문예출판사)

-상처 입은 영혼에서 태어난 하나의 노래, 악성 베토벤의 전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운명 이상의 것이 있다!"

한 그루 나무를 내리치는 나무꾼의 도끼에서 울리는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베토벤의 이 위대한 외침은 전 인류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청각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맛보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았으나, 스스로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자 하였다.

자신의 운명과 손을 잡고 페베로부터 승리를 이끌어낸 베토벤. 이 고통한 승리는 한 인간의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기도 했다. 베토벤은 타인을 위해서 일하고자 소망했고, 그의 불행이 자신 이외의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자연의 온갖 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이름에 값하는 사람이 되고자 전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

베토벤의 아름다운 이 말을 기억하라! 상처 입은 영혼에서 태어난 하나의 노래, 저 위대한 세대의 신성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베토벤의 생애>에서 깊은 영혼의 울림을 들어보기를 권한다.

"어릴 때부터 그는 내 생활을 위한 길동무였으며 삶의 싸움을 벌일 때마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가며 지탱했다. 안개가 자욱한 라인 강 기슭에서 오직 베토벤과 마음속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그에게 나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고 그의 슬픔과 씩씩함과 그의 고민과 그의 환희에 의해 흡족해져서 무릎 꿇고 있던 마음은 어느새 그의 힘찬 손에 이끌려 일어서게 되었다." -로맹 롤랑

장영희의 영미시산책 <축복>

(장영희 지음, 김점선 그림, 도서출판 비채)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희망입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가 '장영희의 영미시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일간지에 연재해왔던 칼럼 가운데 희망을 주제로 한 칼럼 50편을 묶어 펴낸 단행본. 사랑을 주제로 한 칼럼들을 묶은 '생일'의 후속편이다. 전편과 마찬가지로 윌리엄 스태퍼드, 헨리 왜즈워스 롱펠로, 윌리엄 블레이크, 윌트 휘트먼, 조지 고든 바이런 등 영미 문학사에 이름을 떨친 시인들의 작품에 짧은 감상글을 덧붙였다. 서양화가 김점선의 아름다운 그림이 곁들여져 더욱 멋진 시화집이다.

이 책에 수록된 50편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마치 그런 축복으로 가는 통로를 걷는 일과 같습니다. 영문학사에 길이 남을 시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들이니까요. 19세기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를 읽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기가 시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면 그 누구나 다 시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공짜로 누리게 축복, 우리 안의 희망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이 책에 있는 시들이 시를 읽어버린 마음에 시를 찾아주고, 희망이 부족한 사람에게 희망을 채워주어서 우리 모두를 희망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만들어주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가득해질 때까지..." -장영희